

# 북

## 해남 우항리는 중생대 공룡들 놀이터

새책

Books

### 우리땅 과학 답사기

손영운 지음

지난 1981년 영산강 하구 공사가 시작되면서 해남군 우항리의 갯벌이 간척 호수와 농경지로 바뀌었다. 방조제 공사 전에는 바닷물에 잠겼던 곳이 육지로 변하면서 세계적인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됐다. 이후 이곳은 한국의 공룡 발자국 화석 메카가 됐다.

17년간 과학교사로 근무하다 과학 전문 저술가로 나선 손영운의 신간 '손영운의 우리 땅 과학 답사기'는 그가 직접 답사한 우리 땅 21곳의 전설과 설화, 지층에 담긴 자연사를 들려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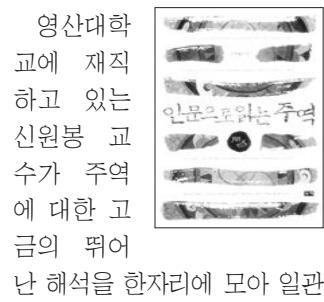
'손영운의 우리 땅 과학 답사기'는 다양한 지형과 특성을 소개하는 과학교양서이다. 사진은 국내 대표적인 공룡화석지인 해남군 우항리의 공룡박물관에 설치된 말리위사우루스의 모습. <광주일보 자료사진>

###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

### 우리 땅의 과학적 재발견

고증·사례 통한 해석

'인문으로 읽는 주역'



고증·사례 통한 해석  
인문으로 읽는 주역

과학잡지 월간 '뉴턴'에 연재한 '손영운의 한반도 과학 여행'을 엮은 과학교양서이다.

선사 유적지가 있는 경기도 연천부터 신생대 화산 활동의 자취가 남아있는 제주도 남제주군까지 다양한 지형의 형성 과정을 쉽게 설명했다.

강화도, 태안, 부안, 해남, 태종대, 안동, 태백, 삼척, 영월, 춘천, 제주도 남제주군 등 국내 곳곳을 찾았더니 지역의 전설과 설화 그리고 지층에 담긴 자연사 이야기를 풀어냈다.

저자는 바다였던 해남 우항리 갯벌에서 공룡 발자

국이 많이 발견된 이유에 대해 들려준다. 이곳은 공룡이 살았던 중생대까지만 해도 바다가 아니라 거대한 호수를 끼 유했었다.

이 같은 사실은 해남 우항리, 신성리와 매산리까지 이어지는 해안에 펼쳐진 퇴적암과 절벽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우항리 퇴적층은 지금으로부터 약 8천300만~5천500만년 전으로 추정되는 중생대 백악기 말에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데, 호수 속에서 퇴적된 이암과 사암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왜군을 진도의 울돌목으로 유인한 것도 한반도 지형을 잘 살린 전략이었다.

현재의 진도대교 밑으로 조류가 흘러 남해로 빠지

는 길목인 울돌목은 다른 지역에 비해 조류가 3배가량 빨라 왜선을 혼란에 빠뜨리기 쉽다는 것이다.

또 2천300여개의 크고 작은 섬으로 이루어진 다도해는 약 1만년 전인 중생대 후방기 때 해안 지역이 해침(海浸·transgression)을 받아 형성됐다.

주상절리의 형성 과정, 한반도의 지질도, 해안단구의 형성 과정 등을 일러스트와 저자가 직접 찍은 300여 장의 사진을 곁들여 설명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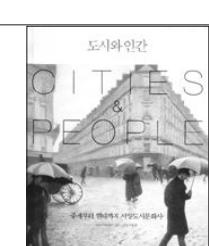
독자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상세한 위치 설명을 빠뜨리지 않았고, '손영운의 과학지식' 코너를 만들어 다양한 지구과학 상식도 들려준다.

<살림·1만4천원>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도시와 인간

마크 기로워드 지음·민유기 옮김



책은 고대 한자에 대한 문학적 고증, 역사적 사례를 적용한 폐에 대한 명쾌한 해석, 논어 등의 고전을 폭넓게 적용한 인문적 관점의 '주역 읽기'를 시도하고 있다.

저자는 "주역에 대한 폭넓은 인문적 이해는 역(易)의 역할을 그 뜻에 맞게 한정하고 주역이 지혜의 책이 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한다.

<부키·2만3천원>

/김대성기자 bigkim@

### 중세부터 현대까지 서양도시문화사

의 도시, 역동적인 인간의 역사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저자의 도시문화사 여행은 11세기 중세 도시의 부활을 이끈 콘스탄티노플,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로 성장한 베네치아와 제노바, 16세기 로마와 대서양의 무역도시, 17~18세기 암스테르담과 파리, 19세기 이후 산업도시로서 번영을 구가해 온 런던, 맨체스터, 뉴욕 등 현대의 도시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 거리와 광장, 정원과 산책로, 마천루와 스카이라인 등을 통해 도시의 공간 구성방식을 분석하고 재래시장과 백화점, 종교시설과 문화 공간, 각종 기념물과 상징물 등 도시문화에 생명력을 불어넣은 건축물들의 의미도 살펴본다.

'이상도시'에 대한 논의도 재밌다. 저자는 대도시

가 지난 부정적 측면의 대안으로 추구된 다양한 이상도시 건설 기획들, 19세기 말 정원도시운동과 국제적 근대 건축운동의 전개 과정을 검토하면서 '인간이 꿈꾸는 도시'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상적인 도시로 만들어졌으나 결국 무수한 문제점이 공존하는 다른 도시들과 닮아간 로스엔젤레스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이상도시'란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되묻고 있다.

도시와 도시문화에 대한 315장의 화려한 그림과 사진 자료는 독자의 눈을 즐겁게 한다. 또 각 도시의 지명 해설과 참고문헌을 부록으로 엮여 전문가들은 물론 일반 독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책과 함께·4만8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개업·성업 안내

1. 신규 개업	2. 신규 개업	3. 신규 개업	4. 신규 개업	5. 신규 개업	6. 신규 개업	7. 신규 개업	8. 신규 개업	9. 신규 개업	10. 신규 개업
11. 신규 개업	12. 신규 개업	13. 신규 개업	14. 신규 개업	15. 신규 개업	16. 신규 개업	17. 신규 개업	18. 신규 개업	19. 신규 개업	20. 신규 개업
21. 신규 개업	22. 신규 개업	23. 신규 개업	24. 신규 개업	25. 신규 개업	26. 신규 개업	27. 신규 개업	28. 신규 개업	29. 신규 개업	30. 신규 개업
31. 신규 개업	32. 신규 개업	33. 신규 개업	34. 신규 개업	35. 신규 개업	36. 신규 개업	37. 신규 개업	38. 신규 개업	39. 신규 개업	40. 신규 개업
41. 신규 개업	42. 신규 개업	43. 신규 개업	44. 신규 개업	45. 신규 개업	46. 신규 개업	47. 신규 개업	48. 신규 개업	49. 신규 개업	50. 신규 개업
51. 신규 개업	52. 신규 개업	53. 신규 개업	54. 신규 개업	55. 신규 개업	56. 신규 개업	57. 신규 개업	58. 신규 개업	59. 신규 개업	60. 신규 개업
61. 신규 개업	62. 신규 개업	63. 신규 개업	64. 신규 개업	65. 신규 개업	66. 신규 개업	67. 신규 개업	68. 신규 개업	69. 신규 개업	70. 신규 개업
71. 신규 개업	72. 신규 개업	73. 신규 개업	74. 신규 개업	75. 신규 개업	76. 신규 개업	77. 신규 개업	78. 신규 개업	79. 신규 개업	80. 신규 개업
81. 신규 개업	82. 신규 개업	83. 신규 개업	84. 신규 개업	85. 신규 개업	86. 신규 개업	87. 신규 개업	88. 신규 개업	89. 신규 개업	90. 신규 개업
91. 신규 개업	92. 신규 개업	93. 신규 개업	94. 신규 개업	95. 신규 개업	96. 신규 개업	97. 신규 개업	98. 신규 개업	99. 신규 개업	100. 신규 개업



▲대통령을 위한 과학 에세이=소장 이론물리학자인 이종필씨가 과학자의 눈으로 바라본 '비과학적' 세상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과학적 사고 두뇌'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사례를 들어 세상의 문제를 해석하는 발칙한 정치학적 상상력이 돋보인다.

<글향아리·1만500원>



▲철학, 인간을 읽다=플라톤의 '소크라테스의 변명'과 '국가', 아リスト�텔레스의 '윤리학',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영성록', 데카르트의 '방법서설' 등 고전적 철학서 18권을 소개한다. 제목 정도만 알고 있는 혹 언젠가는 꼭 읽어봐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존재하는 책들을 친근하게 소개한다.

<부글·1만5천원>



▲사랑의 학교=미광수 교수가 '즐거운 사라' 이후 다시 찾은 경쾌한 문장으로 아쉽게 쓴 소설집. 현실과 환상을 넘나들며 펼쳐지는 애듯한 관능의 이야기들과 인생살이의 우연성과 허무를 보여주는 29편의 단편을 한데 묶었다.

<북리뷰·1만2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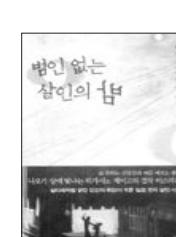
▲길위의 절=수없이 많은 사찰을 답사하고 또 종교 안팎을 오랫동안 살펴온 불교신문 장영섭 기자가 절 안의 내밀한 곳에서 발견한 '깨달음'·'생명' 등의 감흥을 전하고 있다. 곡성 태안사, 강진 백련사 등 마흔 두 곳의 사찰에 걸친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수록했다.

<불광출판사·1만3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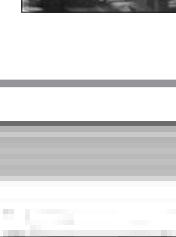
▲죽음의 해부=19세기 말 미국을 배경으로 마야 해로인의 탄생에 얹힌 스캔들을 다룬 로렌스 글드스톤의 메디컬 팩션. 깊고 유동한 의사 캐릭터를 소개해 볼 수 있는 여려가지 윤리적 달래마를 제시한다. 또 '신경윤리학'을 소개하고 노파학이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해 탐색해본다.

<바다출판사·1만3천원>



▲박쥐=박찬욱 감독이 10년 넘게 고심해온 시나리오 '박쥐'를 힘으로 재구성한 소설. '흡혈'이라는 과격적인 소재와 치명과 살인으로 이어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 전개를 통해 인간의 내면에 공존하는 선과 악, 죄의식과 욕망의 문제를 침밀하게 그려내고 있다.

<그책·1만2천원>



▲범인 없는 살인의 밤=나오기상은 수상한 일본인 주리소설 작가 히가시노 게이고가 쓴 소설집. 욕망, 이기심, 그리고 인간 내면의 어두운 심리 묘사를 타월하게 표현해낸 미스터리 걸작이다. 속도감 넘치는 전개와 실타래처럼 얹힌 수수께끼 등 손에 땀을 쥐게 하는 7편의 단편이 실려 있다.

<랜덤히우스·1만원>